

광주일보 제6기 독자위원회 5차회의

일시:2012년 12월 4일 장소:광주일보 회의실

대선, 공정한 보도로 지역유권자의 ‘알권리’ 채워주길

강대석 (전 전남공무원교육원 원장)



지역여론 대변·사회발전 견인
호남의 든든한 정론지 되길

노미향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



적자 F1 사이 띄우기
효과부풀리기 반감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지적부터 대안제시까지 좋아

조미옥 (나주 영산포여중 교사)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교육적으로 꼼꼼히 판단해주길

윤영현 (광주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갈등 있었던 금호타이어
노사 행복한 동행 ‘훈훈’

▲강대석=바쁜 시간을 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을 느낀다. 오늘 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인 만큼 광주일보의 지난 1년을 돌아 보고 많은 조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노미향=10월11일자 1면 ‘전남도 실적 부풀리기’기사 바로 옆에 ‘싸이 효과 F1도 뜬다. 한국대회관심고조 입장권 판매 25% 늘 듯’이라는 기사가 나란히 게재됐다. ‘효과 부풀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기사 신뢰도가 반감됐다. F1하면 아직도 적자운영으로 문제가 많고 정부에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해온 터라 같은 지면에 배치된 것이 아쉬웠다. 비슷한 의미로 10월22일자 2면에 실린 ‘국제행사 효과로 인해 전남 곳곳 든든해 졌다’라는 기사에서 행사결과에 대한 효과는 자랑했지만 정작 행사가 끝나면 활용대책이 전무하고 투자는 미흡하다는 이전의 기사들이 떠올라 국제행사 진행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독자 입장에서 혼돈이 왔다.

11월12일자 17면 ‘예뻐지려면 눈 16세, 코 19세 이후 수술’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너무 선정적이었다. 그 시기가 되면 꼭 성형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광고면 같이 느껴졌다.

▲이묘숙=곧 치러질 대선은 나라 전체의 가장 큰 이슈다. 후보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언급했던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결책, 지역성 공약은 매 방문시 기사화 된다. 그러나 그 시점에만 거론되거나 대선 결과에 따라 놓쳐버리는 부분도 분명 있다. 후보의 언급을 꾸준히 주시하고 알리는 것이야말로 후보 측에 각인시키는 효과와 함께 각 진영이 순간적 임기응변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을 고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0월24일자 1면 ‘아(亞)문화전당 채울 콘텐츠 개발 캠프’ 기사처럼 문제점 지적은 물론 대안까지도 함께 다룬 것은 언론의 훌륭한 기능이라고 본다. 10월10일자 12면 ‘동네잔치 된 아트광주 광주문화재단 손 댄다’ 기사도 그 예다. 경제면이 이전에 비해 가정경제와 개인 경제에 활용적인 기사로 채워진 것은 고무적 현상이다. 10월23일자 8면은 대형마트별 공산품 비교도표까지 활용,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기사를 바란다.

▲조미옥=11월30일자 1면 ‘아! 나로호 고층의 꿈 또 스릴’ 기사의 사진은 기사 내용보다 전답의 힘이 강했다. 광주일보 기사 중 1면에 배치하는 사진기사의 메시지 효과가 다른 신문과 뚜렷한 차별화를 보인다. 다만 사진의 제목을 정할 때 더 신중한 태도를 주문한다. 예를 들어 나로호 발사는 전 국민의 희망이고 바람인데, ‘고층의 꿈’이라고 정해 나로호 발사가 지역 염원으로 축소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1월29일자 1면에 ‘박근혜 현수막 수난,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사는 광주일보가 정치적 중립과 올바른 시민의식을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으며 후속 ‘선거 현수막에 칼질, 시민의식이 정도인가’ 사실로 한층 객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1월30일자 6~7면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해 기사가 나왔다. 성적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할 때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교육적으로 특이 될 수도 있지만 해가 될 수 있는 요인도 많다. 기사를 다룰 때 파생되는 교육적 경쟁이 교육적인지를 꼼꼼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

▲윤영현=11월27일자 9면 ‘노사 행복한 동행’ 기사는 지역기업들의 다양한 노사화합 프로그램을 소개해 노사상생협력 분위기가 조성 차원에서 매우 좋았다. 특히 노사갈등을 겪었던 금호타이어에 대한

광주일보 제6기 독자위원회가 4일 오전 동구 금남로 2가 광주일보 대회의실에서 올해 5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강대석·경훈·노미향·안응덕·윤영현·이묘숙·임선숙·조미옥·천성권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9명이 참석했다. 독자위원들은 4차 회의 이후 광주일보 지면 변화 및 올 한해 제작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조언하는 시간을 보냈다.

소개는 의미가 있었으며 향후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내용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대선을 앞두고 기업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채 노동계 편향적인 노동경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업의 생존과 발전이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복지증진도 이뤄진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기업이 당장 감내하기 힘든 선심성 공약들에 대해 중도적 입장에서 면밀한 분석과 대안제시를 요구한다.

▲안응덕=광주일보 독자위원으로 1년을 보내면서 진정한 광주일보의 가족이 된 것 같았다. 특히 전공과 일치되는 스포츠분야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면을 살펴봤던 한해였다. 올해 스포츠 분야는 런던 올림픽 등 다양한 국내외 체육 행사가 많아 체육 분야 담당자에게는 매우 바쁜 1년이었다. 체육면 기사는 프로야구와 축구 등 프로스포츠와 엘리트스포츠, 생활체육 소식, 학교체육, 체육인 관련 소식 등 매우 다양하게 이뤄진다. 그러나 광주일보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 신문임에도 담당기사가 명이 2면의 기사를 구성해야 해 지역에 밀접한 현장 소식을 전달하지 못했다. 특히 또한 부족해 큰 관심을 얻기 힘들었다.

힘든 지역 언론의 현실을 알고 있지만 호남 지역민들이 그 어느 곳보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매일 다양한 분야의 신선한 기사가 현장감 있게 보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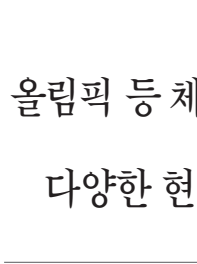
▲임선숙=11월은 영광원전과 관련된 기사가 1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 끊임없이 발견되는 안전관련 미흡한 조치들을 2~3면에 걸쳐 집중보도하며 영광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불안감과 문제의식을 조명했다. 영광원전의 문제를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보게 하고, 그 심각성에 비해 연일 보도한 광주일보가 언론의 제 기능을 착실히 하고 있어 만족했다. 다만 영광원전 문제는 전남서남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존의 문제가 될 터인데, 영광의 국지적 문제로 좁혀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11월1일자 9면 ‘대출금리인하요구권’ 설명 기사는 대출기관의 환포로부터 정당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유익한 기사였다. 11월14일자 9면 ‘지역민 작년 14조원 끊었다’는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기불황을 보여주는 기사였는데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막대그래프 등이 포함됐으면 더 친절할 기사가 됐을 듯 싶다.

▲경훈=11월14일자 1면 ‘성공축제는 지방자치 실험기여-’ 기사를 보며 문화예술계통 참여자로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아카데미 토론자들이 제시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탈피와 지역자립,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서 축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내용은 지역축제 성공의 대안을 제시했다.

11월13일자 12면 소태동 ‘조그만 한옥, 종교공간에서 예술공간으로’ 기사는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경정심리에서인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시설을 웅장하게 건축하는 것이 요즘 세태다. 종교를 갖고 싶어도 쉽게 다가가기 힘들만큼 벽을 높게 쌓는 느낌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조그만 한옥형태의 방 2칸짜리 종교시설을 여는 갤러리 못지않게 만들어 쉽게 이용하고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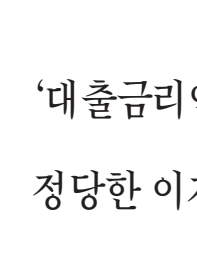
▲천성권=선거의 해다. 지난 4월 총선과 다가오는 대선까지 광주일보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로 지역유권자의 ‘알권리’를 넘겨줘 채워줬다고 자평한다. 특히 현재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시점마다 지역민심의 추이를 여론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알려줘 지역 유권자로서 매우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 올해 치러진 행사 가운데 백미였던 여수

안응덕 (조선대 체육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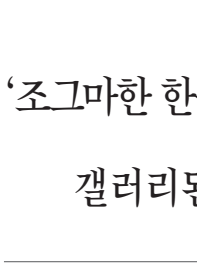
올림픽 등 체육행사 많았지만
다양한 현장소식 부족했다

임선숙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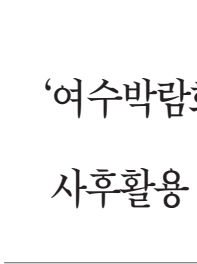
‘대출금리인하요구권’ 설명
정당한 이자청구 방법 유익

경 훈 (행복문화사업단 본부장)



‘조그마한 한옥, 예술공간으로’
갤러리된 종교시설 눈길

천성권 (광주대 학생지원처장)



‘여수박람회’ 기대효과 부각
사후활용 방안 없어 아쉬움

세계박람회는 행사 준비과정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내용과 기대효과 등 주로 행사의 긍정적인 면을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시킨 반면, 행사가 끝난 지금 골칫거리로 부상한 ‘사후유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지적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강대석=제6기 독자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광주일보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 여론을 대변하고 지역사회발전을 견인하는 호남의 든든한 정론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리=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상가,단독주택,원룸,모텔

토지(대지/전/답/임)특수물건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대지, 전, 답, 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모집, 남골묘, 선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장용지, 입야등 아파트, 원룸, 상가 다량물건보유

20년 원조

광주, 화순, 담양, 나주, 정성, 전남전지역

토지전문 부동산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사구정왕)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남평 강변도시를

주목하세요!

투자.. 지금이 기회!!

혁신도시 보다 저렴한 분양가!

광주시 남구와 공동학군!

대단위 아파트단지 분양예정!

관광호텔, 오피스텔 신축!

점포겸용 주택4층, 근생, 상업용지!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신평면 매성리 354-32

이시공인중개사

팝니다..토지,전답,임야등

*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뽕나무밭 1만평 P당 3만원

* 광주 신가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194P P당390만

* 장성 백암사입구 모텔 및 식당(성일중)대800P, 매가18억

* 영광군 읍.자동차정비공장20년간운영 자동차점시장등,매가6억

* 화순 이양면 초방리 임(77.727㎡,23.512평)매가1억

* 광주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및 준공업지역,1천4백P,2천5백P, 2만P등(각종 공장 및 기타사용 가능)

* 광주 동구 수기동 대지590P, 중심상업지역 매가24억

* 화순군 동면 서성리 호수부근 대지 210P 매가1억3천만

*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매실밭,421P,매가3400만

* 오지동 3층신축상가주택,매11억(용,보5억5천포함)월수6백만

* 장성 남면 2중주거지역, 전200P,청고,공장,주택등,매가1억

* 광산구 우산동 4층원룸 매가16억 월수 6백만,

* 영광군 흥농읍 주유소, 대지460평 매가5억

* 북구 중흥동 원룸3층원룸 매가4억 월수 250만(인접별도)

* 장성군 북하면 백암사입구 주유소,대919㎡, 매가 4억5천만

* 장성군 읍,덕진리 대로면 전답,임야등10,100P, 매가 P당15만

* 광주 오치동 아파트밀집지역내 5층상가,대166P,매가17억

구합니다(매수자대기)

* 칠강공장부지1~3천평 (담양 대전면부근,8M이상도로접)

* 담양, 봉산면부근 공장부지3천평(대형차량진입가능)

* 소나무 좋은 임야 1만평이상(장성,화순,담양,함평,곡성등)

* 광주시내 수익성있는 상가건물3~18억선

* 광주,첨단2지구내 병원신축부지 150평 ~ 300평

* 개인소유 저수지 3천평이상

* 전남,전북일원 폐교부지 3천평이상

* 도로여건 및 경관좋은임야 1만평이상

* 원룸 신축부지(광산구 신정동 및 신가,하남,첨단지구등)

기타물건다량보유-전화상담바랍니다

전화 : 062-268-2834

HP : 010-6460-2834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각화동 홈플러스신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4~5층 각 130평

* 6층 110평

보5천 / 월200만

* 지하 140평

(임대가 및 조건조정가능)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15평~29평

9~12% 높은수익률

치명동 근린상가 매매

* 매가29억~100억대

물건다량 보유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명동랜드피아 O/P 층)

급매 상가/원룸

▶ 총 합계 : 보증금 4,700만

월세794만

▶ 1층 편의점 1개

원룸 21개, 투룸 4개

▶ 토지면적 : 330.58㎡

(100p)

▶ 건축면적 : 737.19㎡

(223p)

▶ 매매가6억9천(용지 2억4천

4백 포함) 보증금 4천7백만

원, 월세 794만원 용자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투자금 3

억9천9백만 대출이자 월

122만원 공제하면 월순수익

672만원 년수익률 20% 편

의점 운영하면서 원룸관리

하시면 월수익 1,000만원

이상 가능함.

문 의 : 011-684-3886

모텔 매매

▶ 아시아문화전당 전대방

원부근

▶ 토지 89P 건물 233P

▶ 5층 객실21개 지하 노래

홀 엘리베이터 주차장 각

종 편의시설 완비 최근

리모델링 완료

▶ 매매가 4억9천 용지 2억3천

5백 실투자금 2억5천5백

문 의 : 011-684-3886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염전 급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소문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연일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FAX)223-1772 맨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옆, 대전동 소정사거리내)